

근대 아랍어 사전의 편찬방식에 대한 연구

- 알파벳 순 배열 방식을 중심으로 -

윤 은 경*
한국외대

차 례

- I. 서론
- II. 근대 아랍어 부흥 운동 및 사전 편찬 활동
- III. 『무히뜨 알 무히뜨(Muḥīṭ Al-muḥīṭ)』
- IV. 『알 문지드(Al-munjid)』
- V.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ʿjam Al-wasīṭ)』
- VI.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강사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Modern Arabic Lexicography - focused on the alphabetical arrangement

Yun, Eun-Kyeong

HUFS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method of modern Arabic lexicography from 19c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focused on the ordinary alphabetical arrangement. The great interest in codification to make Arabic language a capable and uniform instrument of communication arose first in relation to Islam.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textual integrity and correct pronunciation of the Arabic language in the Qur'ān, the first linguistic studies were started and they were systematized by Al-khalīl Bn 'Ahmad who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greatest Arab linguists.

Al-khalīl had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compilations of the Arabic dictionaries and it was characterized by the permutational or anagrammatical arrangement. For succeeding to Al-khalīl's method, Al-Azhari compiled his dictionary by the permutational or anagrammatical arrangement. In the modern age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until the early of 20th century, some dictionaries were compiled by the modern alphabetical arrangement order. The representative of this step is Butrūs Al-bustāni's 『Muḥīṭ Al-muḥīṭ』, Luyis Al-ma'rūf's 『Al-munjid』, and 『Al-mu'jam Al-wasīṭ』 compiled by the academy of Arabic language in Cairo. These dictionaries drove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Arabic lexicography and led to the compilation of most fruitful modern Arabic lexicographical works. And they are considered as the most famous Arabic dictionaries until nowadays.

Key Words : Arabic Lexicography, Dictionary, Alphabetical arrangement, Muḥiṭ Al-muḥiṭ, Al-munjid, Al-mu'jam Al-wasīṭ

I. 서론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쓰이기 시작해 7세기 이슬람의 등장과 더불어 북부 아프리카 및 레반트 지역에 전파됨에 따라 오늘날까지 22 개국에서 약 3억 명에 의해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종교어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 인구까지 합치면 약 13억 명이 구사하는 세계의 주요 언어이며 유엔이 지정한 공용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세 이래 보편성을 누려온 아랍어는 그리스어 및 라틴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 등과 함께 세계의 중요한 언어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적인 우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랍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아랍-무슬림 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아랍어가 담당해 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가능했다.

아랍어의 중요한 근원은 초기 이슬람 시대 시문학과 이슬람의 경전 꾸란(Quran)이다. 아랍인과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라(Allaah)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언어가 아랍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몇몇 아랍 부족의 공통 언어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광대한 이슬람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은 달랐다.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은 아랍 정복자들 뿐 아니라 이슬람으로 귀의 한 후 아랍어를 배우고자 했던 비 아랍계 무슬림들에게 있어 중요한 언어학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아랍어에 능통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특히 꾸란을 낭송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은 아랍어로 이루어진 꾸란 원문의 고결성과 정확하고 순수한 아랍어 발음을 고수하고, 꾸란 내용의 이중적인 해석이나 모호함을 피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

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경중을 올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순수한 아랍어의 보존, 유지를 위한 문헌학적 활동들이 무슬림학자들에 의해 시도 되었으며 꾸란 내용의 정확한 해석과 보존을 목적으로 아랍어 사전학이 태동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의 아랍어 사전은 알 칼릴 본 아흐마드(al-khalil Bn 'Aḥmad)의 『키타브 알 아인(Kitāb al-'ayn)』이다. 이 사전은 어휘들을 조음점(Makhraj)에 의거 후두음부터 시작하는 알파벳순에 따라 순환식으로 배열하는 독특한 편찬 방식을 선보였고 이어서 마지막 자음 즉 각운에 따라 단어를 배열한 사전이 나타났다. 근대에 들어 현재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단어의 첫째 자음에 의거한 편찬방식도 소수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본 소고에서는 아랍어 사전의 발달 과정에 대해 근대 이후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등장한 아랍어 사전들 중 어근의 첫 번째 자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알파벳 순 배열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는 1장 서론을 포함하여 2장에서는 근대 아랍어 부흥 운동 및 사전 편찬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어근의 첫째 자음에 따른 알파벳 순 편찬 방식의 대표적 사전인 『무히뜨 알 무히뜨(Muḥiṭ Al-muḥiṭ)』, 4장에서는 『알 문지드(Al-munjid)』, 5장에서는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jam Al-wasit)』의 특징 및 편찬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장 결론에서는 이 근대 사전들이 아랍어 사전학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조명해보고 이후 현대 아랍어 사전 편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근대 아랍어 부흥 운동 및 사전 편찬 활동

1. 아랍어 부흥 운동

한때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이슬람 제국이 동부와 서부의 군소 왕

조들로 해체되었을 때 아랍 문화는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랍 문화의 독특한 성격이 오랫동안 아랍·무슬림 세계에서 보존되었고, 문법, 역사, 종교, 문학, 과학, 철학 분야 등에서의 지적 발전과 교류가 국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적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공통어로서의 위상을 유지했던 아랍어의 역할로 인해 가능했다. 학자들은 그들이 바그다드나 스페인 혹은 이집트에 있던 간에 아랍어를 통해 자유롭게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언어적 단일성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아랍 세계가 민족주의에 근거하는 여러 주권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공통된 문화적 동일성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랍 세계의 지적 부흥이 공통어인 아랍어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초국가주의의 등장이나 아랍 국가들을 갈라놓았던 격정적인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적 단일성은 아랍 세계의 지적 부흥 운동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아랍 세계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일 것이다. 이 원정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나, 군사적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아랍 세계에 남겼다.

이집트의 아랍어 부흥 및 사전학, 제반 언어학 연구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 인물로는 무함마드 알 카드리(Muhammad al-Khadri), 아흐마드 알 이스칸다리(Ahmad al-Iskandari), 아흐마드 파트히 자그룰(Ahmad Fathi Zaghlul) 등이 있다(Ahmad 1985:276). 그들은 잡지나 신문에 아랍어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을 썼고, 전문적 학술 용어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다. 아랍어 부흥을 위한 이집트와 레반트 출신의 지식인들의 노력은 1934년 카이로에 아랍어 학술원(Majma' Al-lughah Al-'arabiyyah)이 설립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언어 학술원의 설립은 이집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아랍어의 사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32년 12월 13일 왕립아랍어학술원(Majma' Al-lughah Al-'arabiyyah Al-malaki)이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푸아드(Fu'ad) 1세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2년 후인 1934년 왕립학술원이 모태가 되어 언어 학술원이 설립되었

다. 언어 학술원은 1952년 나세르 혁명과 그에 따른 왕정제의 폐지로 현재의 명칭인 아랍어 학술원(Majma' Al-lughah Al-'arabiyyah)으로 바뀌었다. 아랍어 학술원의 주된 목적은 아랍어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근대 학문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용어를 단일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즉 아랍어를 현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과 가능하다면 고대 문학 작품에 남아있는 오래된 표현들이 예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일이었다. 또한 아랍어 학술원은 기술 용어의 사용을 표준화시키는 현대 사전의 편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 시작된 언어 운동은 비옥한 초생 달 지역, 특히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계승 발전되었다. 1840년 이브라힘이 철수한 후 언어·지적 부흥 운동은 계속되었고, 많은 수의 인쇄기 도입과 민족주의 학교 및 외국 학교의 설립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아랍어 부흥 운동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초기의 부흥 운동이 아랍 지식인들 뿐 아니라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과 서구 국가들 간의 접촉은 우마이야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기간 동안 사상과 철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특히 레바논에서는 1863년 부뜨루스 알 부스타니(Butrūs Al-bustāni)가 민족주의 학교를 세움으로써 아랍어 부흥 및 제반 학문 분야의 발전이 본격화되었다. 부뜨루스는 나중에 『무히뜨 알 무히뜨(Muḥiṭ Al-muḥiṭ)』라는 유명한 사전을 편찬한 인물이다.

또한 1866년 미국의 지원에 의해 설립된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 of Beirut)은 레바논에서의 아랍어 부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대학은 문학, 과학, 의학, 약학 등의 전공 분야의 모든 강의를 아랍어로 진행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했고 아랍어 교육과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은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고, 이들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까지 지적 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아랍 언어학, 문학 연구회가 조직되고 서적과 정기 간행물 및 잡지의 출판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 아랍어 사전 편찬 활동

아랍어 사전의 초기 편찬 방식은 제한된 범위의 어휘들을 불분명한 체계로 배열한 형태였다. 이로 인해 정리 방식에 있어 일관된 체계의 정립과 사전을 찾아보는데 용이한 방식으로 편찬된 사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부응하여 나타난 최초의 사전이 알 칼릴 본 아흐마드의 『키탃 알 아인』이다. 알 칼릴은 아랍어의 보편적인 알파벳순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체계를 고안해 내었다. 그는 조음점에 따라 알파벳을 배열하였는데 그 순서는 목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소리 즉 후두음인 ‘ayn, ḥā’, hā’, khā, ghayn으로 시작하여 qāf, kāf, jīm, shīm, ḍāḍ, ṣād, sīm, zay, tā’, rā’, tā’, zā’, thā, dhāl, lām, nūn, fā’, bā’, mīm, wāw, ‘alif, ya’ 등의 순이다(윤은경 2010: 271).

알 칼릴은 『키탃 알 아인』의 편찬을 시작할 때 아랍어 자음이 관례상 알리프(‘Alif) 또는 함자(Hamzah)로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만의 독특한 배열 방식으로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법을 창안하였다. 또한 그의 동시대 인물 아부 아므르 알 샤이바니(‘Abu ‘Amr Al-shaybāni)는 『키탃 알 짐(Kitāb Al-Jīm)』에서 현대식 알파벳순에 의거한 사전편찬방식을 사용, 단어들을 첫 번째 자음에 의거, 분류하는 체계를 시험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알 샤이바니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알파벳순 배열방식은 논리적인 체계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방식으로 볼 수 없었고 이후 사전편찬학자들이 여러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현대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단어의 첫 번째 자음에 의거 사전을 편찬하는 방식은 이븐 두라이드(Ibn Durayd, 837-934)가 『알 잠하라(al-Jamharah)』에서 알 칼릴의 순환 식 단어 배열법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지만 알파벳 순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음과 그 뒤에 오는 자음의 순으로 하여, 앞에 오는 자음은 무시하였다. 그 뒤 이븐 파리스(Ibn Fāris, 941-1004)가 『알 마까이스(al-Maqāyīs)』에서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따라 단어의 첫 번째 자음에 의거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이것 역시 오늘날에 일반화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븐 파리스는 해당 자음과 알파벳 순에서 뒤에 오는 자음들을 먼저 나열

하고 hamzah와 ba', ta' 등은 모든 자음들이 끝난 뒤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Husayn 1998: 88-92).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의거, 단어를 배열하는 방식이 완전한 형태로 소개된 것은 알 자마크샤리(Al-zamakhshārī, 1075-1144)의 『아사스 알 발라가(Asās Al-balāghah)』에서이다. 『아사스 알 발라가』는 단어들의 실제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비교 설명한 사전으로서 가치 있는 사전이다. 알 자마크샤리는 꾸란 주석, 문헌학, 수사학 등 제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무으타질라¹⁾적인 비정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인들 사이에서 별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Haywood 1965: 104). 그러나 이후 몇몇 학자들은 알 자마크샤리의 사전 편찬방식이 과거의 것들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단어의 마지막 자음에 의거 각운 식으로 편찬된 『리산 알 아랍(Lisān Al-'arab)』과 『알 사하흐(Al-ṣaḥāḥ)』, 『알 까무스 알 무히뜨(Al-qāmūs Al-muḥīṭ)』 등을 현대식 알파벳 순으로 재편집하기도 하였다. 특히 『알 까무스 알 무히뜨』는 무함마드 븐 야킥 아부 따히르 알 피루자바디(Muḥammad Bn Ya'qūb 'Abū Tāhir Al-firūzabādī)가 편찬한 사전으로서 아랍어 사전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알 피루자바디는 대중들을 위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사전의 편찬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알 까무스 알 무히뜨』의 편찬방식은 다음과 같다(Husayn 1998: 136-141).

- ① 사전편찬방식에 있어 알 자우하리의 각운 식 단어 배열 방법을 따랐다.
- ② 요약의 원칙을 따라 꾸란, 하디스, 시가 등의 용례 및 참고문헌의 원저자명을 생략하였고, 일부 어형들과 동의어, 중복된 단어들도 제외하였다.
- ③ 각 파생형들의 의미를 구분, 첨가형의 해당 원형들을 제시하였다.
- ④ 고유명사의 기록에 중점을 두어 하디스학자, 법률학자, 도시와 지역명칭들을 많이 기록하였고, 식물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정보들도 기록하였다.

1) 무으타질라 학파는 그리이스 철학을 주로 받아들여 논리학과 유추사상을 기본으로 삼았던 학파이다. 또한 '꾸란'이 알라에 의해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아랍인들 간에서는 비정통적인 사상학파로 배척되었다.

- ⑤ 기타 제반학문, 작시법 분야의 전문용어, 외래어(Dakhil)와 아랍어화 된 단어의 설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 ⑥ 알 자우하리가 『알 잠하라』에서 기록한 것에 추가된 내용들을 붉은 색 잉크로 쓰고 그 위에 선을 그어 표시하였다.
- ⑦ 이전의 사전들의 필사 과정에서 나타난 오기들을 교정하여 기록하였는데, 단어의 모음표기에 있어서 잘 알려진 것과 파트하를 가지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담마 모음과 카스라 모음을 갖는 것은 각각 /bi l-damm/, /bi l-kasr/등으로 부연설명 하였다.
- ⑧ 어휘 설명에서 5개의 약어를 사용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단어(Al-ma' ruf)의 의미인 /mim/, 장소(mawḍa')를 나타내는 / 'ain/, 복수(jam')의 의미인 /jīm/, 마을이름(qariyah)의 의미인 /hā', 국가명(balad)의 의미인 /dal/이다.
- ⑨ 가끔 남성 형 단어에 /wa bi l-hā'라는 표현을 덧붙여 여성 형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karim wa bi l-hā'/는 /karimah/라를 나타낸다.

아랍어 사전 편찬 방식에서 최초로 모음 부호 표기를 시도한 학자는 알 자우하리이지만 알 피루자바디는 좀 더 발전된 단계의 방법을 이용, 공간의 절약과 많은 수의 어휘를 간결 명확히 설명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알 까무스 알 무히뜨』는 당대 유명한 아랍어사전 중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또한 그 명성으로 인해 오늘날 아랍세계에서는 원래 '사전'을 의미하는 '무으잠(Mu'jam)'이라는 단어 보다 '까무스(Qāmūs)'라고 명명된 사전들이 훨씬 많이 출현하고 있을 정도이다.

20세기에 들어 아랍어 사전 편찬 활동은 인쇄, 출판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레바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 편찬된 사전류는 아흐마드 파리스 알 쉬드야끄(Aḥmad Fāris Al-shidyāq, 1804-1887)가 저술한 『알 자수스 알라 알 까무스 알 무히뜨(Al-jāsūs 'alā Al-qāmūs)』가 있다. 이것은 각운 식 배열 방법으로 편찬된 『알 까무스 알 무히뜨』의 오류들을 보완한 사전으로 『알 까무스 알 무히뜨』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에 중요한 참고 서적이다. 또한 마흐무드 무르타다 알 주바이디(Maḥmūd Murtaḍā

Al-zubaidī)가 저술한 『타즈 알 아루스 민 자와히르 알 까무스(Taj Al-‘arūs min Jawāhir Al-qāmūs)』가 있는데 거의 12만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다(Wajdi Rijq 1971: 28).

이 외에도 20세기에는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찬된 사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압둘라 알 부스타니(‘Abd Allāh Al-bustānī, 1854-1930)가 저술한 『알 부스탄(Al-bustān)』, 『파키하트 알 부스탄(Fākihāt Al-bustān)』 두 사전이 있다. 또한 사이드 알 슈르투니(Sa‘īd Al-shrtūnī, 1849-1912)의 『아끄랍 알 마와리드(‘Aqrab al-mawārid)』, 아흐마드 라다(‘Ahmad Raḍā, 1872-1953)의 『마튼 알 루가(Matn Al-lughah)』, 부뜨루스 알 부스타니(Butrūs Al-bustānī, 1819-1883)의 『무히뜨 알 무히뜨(Muḥiṭ Al-muḥiṭ)』, 루이스 알 마으루프(Luyis Al-ma‘rūf, 1867-1946)의 『알 문지드(Al-munjid)』,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의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jam Al-wasīṭ)』 등이 있다. 제3장부터는 이 사전들 중 어근의 첫째 자음에 따른 알파벳 순 배열 방식의 대표적인 사전이면서 지금까지도 참고 자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히뜨 알 무히뜨』, 『알 문지드』, 『알 무으잠 알 와씨뜨』의 특징 및 편찬 방식에 대해 순서대로 논하고자 한다.

III. 『무히뜨 알 무히뜨(Muḥiṭ Al-muḥiṭ)』

『무히뜨 알 무히뜨』의 저자는 부뜨루스 알 부스타니(Butrūs Al-bustānī, 1819-1883)이다. 그는 레바논의 알 다비야(Al-dabiyah)에서 출생하였고 고대 시리아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였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4개의 잡지를 창간하였는데 『나피르 수리아(Nafir Suriyyah)』, 『알 자난(Al-jannān)』, 『알 잔나(Al-jannah)』, 『알 주나이나(Al-junaynah)』가 그것이다 (Rāmīl 1992: 138). 저서로는 『다이랴트 알 마아리프(Dā‘irat Al-ma‘arif)』, 『타리크 나폴리온(Ta‘rīkh Napoleon)』, 『알

미쓰바흐(Al-miṣbah)』, 무히뜨 사전의 요해록인 『까따르 알 무히뜨(Qatar Al-muḥīṭ)』 등이 있다.

『무히뜨 알 무히뜨』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알 피루자바디가 쓴 『알 까무스 알무히뜨』의 내용을 보완한 동시에 전문 학술 용어와 기타 예술분야의 필수어휘들을 추가한 사전이다. 출간과 더불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이 사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찬되어 있다(A. Darwish 1996: 128- 131).

- ① 알 부스타니는 『알 까무스 알 무히뜨』가 훌륭한 사전이기는 하지만 각운 식 배열 방법으로 인해 일반인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근의 첫 번째 자음에 따라 현대식 알파벳순으로 단어를 배열하였다.
- ② 보다 근대시대 시인들의 시가를 인용하였고, 자힐리야 시대와 우마이야 시대 시인들의 것은 가급적 인용을 지양하였다.
- ③ 단어 설명방식에서 알 피루자바디의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단수명사의 복수형과 의미, 신조어, 방언, 기독교 용어, 서적명 등을 많이 추가한 반면 용례를 대폭 생략하였다. 또한 문법, 형태론 분야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부 어휘들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여 설명의 이해도를 높였다.
- ④ 각 장의 제목을 관련된 자음의 단어로 명명하였고, 알파벳순서에 의거 단어를 배열하면서 명사를 히브리어와 고대시리아어로 재설명하고, 다양한 사용법과 문장 내에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⑤ 단어들의 정확한 모음표기에 주력하였는데, 복수형을 나타내는 부호로 /jim/을 사용했다.
- ⑥ 사전의 각 페이지를 좌우 양단으로 나누어 상단 우측에는 그 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를, 좌측에는 맨 마지막에 오는 단어를 표기하였다.

『무히뜨 알 무히뜨』는 아랍어 사전학 분야에서 기준에 알려져 있던 각운식 편찬방법을 일보 발전시켜 어근의 첫째자음에 의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일반화 시키는데 기여한 사전으로, 아랍어 사전 발달과정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전의 편찬방식과 단어설명방식은 이후 편찬된 많은 사전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 싸이드 알 슈르투니의 『아끄랍 알 마와리드』, 압둘라 알 부스타니의 『알 문지드』 등은 역작으로

끊히는 것들이다.

『무히뜨 알 무히뜨』의 비평서로는 알 셰이크 이브라힘 알 야지지(Al-shaykh 'Ibrāhīm Al-yazījī, 1847-1906))가 쓴 교정본이 있다. 또한 알 아부 인시타스 알 키르밀리(Al-'abū 'Insitās Al-kirmilī, 1846-1947)는 『알 무으잠 알 무사이드(Al-mu'jam al-musā'id)』를 저술하였는데 『무히뜨 알 무히뜨』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들과 외래어, 신조어, 방언 등을 추가하였다(A. Darwīsh 1996: 133).

IV. 『알 문지드(Al-munjid)』

『알 문지드』의 저자는 루이스 븐 니콜라 알 마으루프(Luyis Bn Niqūla Al-ma'rūf, 1867-1946)이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레바논의 자흘라 태생으로 베이루트 기독교대학에서 교육받은 뒤,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철학과 이론학을 공부하였다.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하였던 재능가로서 1906년 알 바쉬르(Al-bashīr)紙를 운영하기도 했다. 베이루트에서 사망하였고 저서로는 『알 문지드』가 있다.

루이스 알 마으루프가 1908년 자신의 사전을 완성하였을 때 그 제목을 『알 문지드』 즉 ‘도움을 주다’의 의미인 /'anjada/ 동사의 능동 분사로 정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저자는 일반인이 난해한 단어의 의미나 발음방식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사전이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전의 제목을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 명칭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알리 븐 알 하산 알 하나이(Alī Bn Al-ḥasan Al-hanāī, ?-921)로서 그는 자신의 사전을 『알 문지드』라고 이미 명명한 바 있다(Rāmil 1992: 143).

루이스 알 마으루프의 『알 문지드』는 역대 아랍어 사전들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쇄된 아랍어 사전이다. 라밀 야콥에 따르면 1981년까지 24회에 걸쳐 인쇄가 되었다. 또한 1956년 알 아부 페르디난 투툴(Al-'abū Fardinān Tūtul)은 그 인쇄본들 중 열다섯 번 째 인쇄본에서 『알 문지드 피 알 아답

와 알 울룸(Al-munjid fi al-'adab wa Al-'ulūm)』이라는 추가 본을 인쇄하였는데, 동양과 서양의 고유명사, 서적 명, 국가 명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재 인쇄된 사전은 모두 『알 문지드 피 알 아답 와 알 울룸』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였다(Ramīl 1992: 144). 1981년 인쇄된 제 24판의 서문을 포함하여 사전에서 사용된 용어 목록 및 몇 가지 유추에 관한 규칙들을 추가하였으며 동물이나 교통수단, 기계류의 설명에는 그 사전을 담은 도해 표 36가지를 증보하였다. 또한 원본에 없던 어휘 목록과 아랍인들 간에 통용되는 속담, 격언, 고유명사에 관한 부록을 담고 있다. 그 외 『알 문지드』의 설명 방식과 편찬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단어들을 어근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그 의미의 설명에 있어 번호를 달아 구분 설명하였다.
- ② 중복 3자근 동사를 맨 처음의 순으로 놓았다. 예를 들어 /madda/동사는 /mada/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모든 단어를 3자음 어근의 기준에서 분류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반복 4자근인 /zalzala/는 /zalla/ 어근에서 설명하였다.
- ③ 단어의 의미의 설명에서 30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는 능동 분사(ʾIsm Al-fāʾil)를 나타내는 /fāʾ/, 수동분사(ʾIsm Al-mafʾūl)를 나타내는 /mafʾ/, 복수형(Jamʿ)을 나타내는 /jimʾ/, 마쓰다르(Maṣdar)를 나타내는 /maṣʾ/, 여성형(Muʾannath)을 나타내는 /muth/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미완료 시제 동사의 모음에 관한 부호를 설명하였다.
- ④ 이미 설명된 단어를 뜻하는 것으로 “//” 부호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의 사용으로 인해 어휘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다.
- ⑤ 용례와 구전교리 및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은 설명에서 생략하였다.
- ⑥ 단어의 배열과 외형적인 편집에 관심을 기울여 최신 유럽사전들을 모방하였으며, 설명을 위한 도해 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랍어 사전 편찬사에서 최초이다.
- ⑦ 사전을 찾아보는데 용이하도록 파생형들을 붉은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 ⑧ 『무히프 알 무히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이 사전의 축약판으로 간주될 정도이며 그 외 여러 개의 기존의 사전들을 참고로 하였지만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알 문지드』는 오늘날 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아랍어 사전 중의 하나로서 수십 회에 걸쳐 재 인쇄 될 정도로 아랍인들의 호응을 받은 사전이다. 이러한 명성에 힘입어 『알 문지드』를 초보 단계 학생들의 사용에 용이하도록 축소, 재편집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레바논대학 학장 푸아드 아프람 알 부스탄(Fu'ad 'Afrām Al-bustān)이 편찬한 『알 문지드 알 아브자디(Al-munjid Al-'abjadi)』가 그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전의 제목에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전의 단어를 일반적인 알파벳순에 따라 배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lif, bā', jīm, dāl 등의 순으로 배열한 듯 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루이스 알 마르루프는 『알 문지드』를 결점과 오류가 없는 완벽한 아랍어 사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사전 역시 몇 가지 단점들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선은 어휘의 설명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점과 표준 아랍어가 아닌 어휘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과 비평서로는 압둘라 카눈('Abd Allah Kanūn)의 논문 “나자라 피 문지드 알 아답 와 알 우룸(Naẓarah fī Munjid Al-'adab wa Al-'ulūm)”과 무니르 알 우마디(Munīr Al-'umādī)의 “아그라뜨 알 문지드(Aghlāt Al-munjid)” 등이 있다(Husayn 1998 :568-585).

V.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jam Al-wasīṭ)』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jam Al-wasīṭ)』는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Majma' Al-lughah Al-'arabiyyah fī Al-qāhirah)에 의해 편찬되었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학술원은 이집트 국왕 푸아드 1세가 설립한 언어 학술원으로서, 아랍어의 순수성 보존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 활동, 방언의 연구 및 정비, 사전 편찬,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 등이 설립 목적이었다.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은 아랍 세계에서 언어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기관으로서 설립 이후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학술원의 간행물은

아랍어의 모든 면에 관련된 언어적 논쟁과 기고문들을 게재함으로써 공개적인 토론의 장소가 되었다. 학술원 산하 수학, 자연과학, 생물학, 의학, 사회과학, 철학, 미학, 예술 분과 위원회는 매우 활동적이었다. 학술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아랍어 기술 전문 용어들을 조어(造語)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의학, 화학, 물리학, 농업, 경제, 법학, 철학,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전문 용어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전문 용어들을 조어하는 과정에서 학술원은 외래어 용어에 상응하는 아랍어 동의어는 아랍 문헌에서나 아랍어 어근에서 파생시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랍어의 어형 변화에 따라 외래어 용어를 그대로 아랍어에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의 설립은 아랍 사전학과 아랍 언어학 제반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아랍어에 대한 연구, 사전 편찬 및 전문 기술 용어의 아랍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했던 전문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상, 문학, 어학, 제반 학술분야의 유명학자들이 카이로 아랍어학술원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 및 논문을 보급을 목적으로 1934년 학술지가 창간되었다.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에서 발간된 서적으로는 『알 무으잠 알 와시뜨』 외에 『마즈무아트 알 끼라아트 알 일미야(Majmū'at Al-qirārāt Al-'ilmiyyah)』, 『타이시르 알 키타바 알 아라비야(Taysir Al-kitābah Al-'arabiyyah)』, 『알 무으잠 알 카비르(Al-mu'jam Al-kabīr)』 등이 있다(Ibrāhīm Naja 1990: 207-208).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이 『알 무으잠 알 와시뜨』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1936년 이집트문부성의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아랍어 사전 편찬 사업 의뢰에 의한 것이었다. 학술원은 이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0년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정비, 1960년에 이르러 3단으로 구성된 1100페이지 분량의 두 권짜리 사전을 완성하였다. 이 사전은 30,000여개의 표제어, 백만 개의 단어, 600개의 도해 표를 수록한 것으로서 『알 무으잠 알 와시뜨』라고 명명되었다. 후세인 나사르에 따르면 『알 무으잠 알 와시뜨』의 편찬 방식은 다음과 같다(Husayn 1998 :587-590).

- ① 단어들을 알파벳 순에 따라 어근의 첫째 자음에 의거 배열하였고, 4자근에 관련된 단어를 표제어의 설명에서 변이형으로 중복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kawthara/는 /kathara/에서 설명되었으면서, /kathara/의 변이형으로서 /kawthara/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그 외 반복 4자근은 3자근 표제어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zalzala/는 /zalzala/라는 표제어에서, /zalla/는 /zalala/에 설명되어 있다.
- ② 표제어의 설명에 있어, 동사와 명사, 원형과 파생형, 원래의 의미와 은유적 의미, 자동사와 타동사를 비교, 제시하였다. 파생형동사들은 첨가된 자음 숫자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열거되었다. 그 순서를 보면 한 개의 자음이 첨가된 파생동사의 경우 /'af'al/, /fa'al/, /fa'aal/의 순이며, 두개의 자음이 첨가된 파생동사는 /'ifta'al/, /'infa'al/, /tafa'al/, /tafa'aal/, /'if'all/의 순이다.
- ③ 용례의 설명은 필요한 어휘들만의 기록으로 국한 시켰다.
- ④ 관용적으로 자동사로 인정되는 3자근 동사와 비3자근동사, 3자근 자동사의 합자를 이용한 타동사화, 중복된 yā'(yā' mushadadah)와 tā'를 이용한 마쓰다르의 조어,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형들에 대해 연구, 기록하였다.
- ⑤ 참고사전들의 내용에 신조어, 아랍어 화된 단어, 외래어, 현대어들을 다량 추가하였고, 아랍어 화된 단어들 중 상용화된 학술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랍어 학술원에서 아랍어의 일부로 인준한 단어들이다.
- ⑥ 시간, 공간적으로 국한하여 인정되던 관용어휘의 기준을 확대하여, 현대 사회 각 분야에서 허용되는 모든 용어들을 관례적인 것으로 포함하였다.
- ⑦ 단어의 명확한 의미진달을 위해 도해 식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아랍어 사전 편찬 학사에서 두 번째의 일이다.²⁾
- ⑧ 설명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호들을 사용하였는데 미완료시제동사에서 두 번째 자음의 모음을 나타내는 '파트하(faṭḥah)', '담마(dammah)', '카스라(kasrah)'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단어의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wa-/ , 신조어의 의미인 /muw/, 외래어의 의미인 /dal/, 아랍어 학술원에서 인준한 어휘를 뜻하는 /maj/, 현대에 이르러 사용되는 어휘를 뜻하는 /muḥaddathah/ 등을 사용하였다.

2) 도해식 설명을 최초로 시도한 사전은 『알 문지드』이다.

- ⑨ 동사의 장에서 모든 파생형 동사가 한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원형동사의 의미만 기록하였고, 각각의 의미가 다른 경우는 모든 파생형들의 의미를 기록하였다.³⁾
- 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은 생략하였다.

카이로 아랍어 학술원의 『알 무으잠 알 와시뜨』는 일반인들을 위한 보다 현대적인 방식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에서 편찬된 사전이지만 많은 용어와 고유명사의 정의에 있어 학술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전은 이 시대 독창적인 아랍어 사전의 제작을 위한 시도였으며, 기타 아랍어사전들을 능가하는 우수한 장점들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도 아랍 사전학 분야에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근대 아랍어 편찬방식에 대해 어근의 첫째 자음에 의거한 알파벳 순배열 방식으로 편찬된 사전들 중 『무히뜨 알 무히뜨』, 『알 문지드』, 『알 무으잠 알 와시뜨』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꾸란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전승을 목적으로 태동된 아랍어 사전학은 8세기 『키탕 알 아인』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여러 발달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초기 단계로서 알 칼릴의 조음점에 따른 알파벳순과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 일반적인 알파벳순의 순환 식 단어 배열 방식으로 편찬된 사전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단어의 마지막 자음에 따른 각운 식 배열 방식으로 『알 사하흐』, 『리산 알 아랍』, 『알 까무스 알 무히뜨』 등의 주요 사전들이 나타났다. 이 사전들은 각각의 장점들로 인해 아랍어 사전학의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배열 방식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사용에 다소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대에 이르러 아랍어 부흥 운동이 이집트를 비롯한

3) 예를 들어 /naba'a/ 동사는 원형과 파생형의 의미가 같은 경우이고 /qadama/는 원형과 파생형의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여러 아랍 국가들에서 전개되면서 아랍어 사전학 및 제반 학문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언어학 분야에서도 이전에 편찬된 사전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전들이 등장하였다.

이 사전들의 편찬 방식은 어근의 첫 번째 자음에 따른 일반적 알파벳순 배열 방식으로서 부뜨루스 알 부스타니의 『무히뜨 알 무히뜨(Muḥiṭ Al-muḥiṭ)』, 루이스 알 마으루프의 『알 문지드(Al-munjid)』, 이집트 아랍어 학술원의 『알 무으잠 알 와시뜨(Al-muʿjam Al-wasīṭ)』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전들은 기존의 조음점에 의거한 알파벳순 배열 방식, 순환 식 배열 방식, 각운 식 배열 방식에 비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아랍인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또한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일반적 알파벳 순 배열 방식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역대 아랍어 사전들 중 가장 훌륭한 사전들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후 발음에 따른 아랍어 사전 편찬 방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 아랍어 사전학, 사전, 알파벳 순 배열, 무히뜨 알 무히뜨, 알 문지드, 알 무으잠 알 와시뜨

참고 문헌

- 남기심 외(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서울, 한신문화사.
- 윤은경(2010), “아랍어 사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0-1집, 259-280.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 ‘Abd al-Sāmi Muḥammad ‘Aḥmad(1994), *Al-ma‘ājim al-‘arabiyyah*, Cairo, Dar al-fikr al-‘arabi.
- A. G. Chejne(1967), *The Arabic language its role in history*, Minneapolis.
- Aḥmad Naṣīf al-Janābi(1985), *Malāmiḥ min Tārīkh al-luḡhat al-‘arabiyyah*, Baghdad.
- ‘Aḥmad Tāhir Ḥusayn(1987), *Min naẓariyāt al-iktimāl al-luḡhawī ‘inda al-‘ arab*,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 Al-bustāni Butrūs(1983), *Muḥīṭ Al-muḥīṭ*, International Book Centre, Inc.
- Darawīsh ‘Abd Al-llah(1986), *Al-ma‘ājim al-‘arabiyyah*, Qairo,
- Dār al-Maṣḥriq(1996), *Al-Munjid fī al-luḡḥah wa al-‘a‘lām*, Lebanon.
- Dār al-muṣḥriq(1998), *Al-munjid fī al-‘a‘lām*, Lebanon.
- Fontenelle, Thierry ed.(2006),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G. Bergstrasser(1992), *Al-taṭawur al-naḥwī lil-luḡḥah al-‘arabiyyah*, Maktabat al-khānjī, Cairo.
- Ghālī Wajdi Rijq(1971), *Al-ma‘ājim al-‘arabiyyah*, Al-hay‘ah al-miṣriyyah al-‘ amah, Qairo.
- Ḥusayn Naṣār(1998), *Al-mu‘jam al-‘arabī naṣḥa‘atuh wa taṭawwuruh*, Cairo, Dār miṣr lit-tibā‘ah.
- ‘Ibrāhīm Muḥammad Najā(1990), *Al-ma‘ājim al-luḡhawīyyah*, Cairo,

- al-Hay'ah al-miṣriyah al-'āmah lil-kitāb.
- J. A. Haywood(1965), *Arabic lexicography*, 2nd. Ed, Leiden, Netherlands.
- Jibrān Mas'ūd(1998), *Al-rā'id 1.2*,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Jūrjī Zaydān(1980), *Tarīkh al-lughah al-'arabiyah*, Dār al-hadāthah, Beirut.
- Jūrjī Zaydān(1982), *Al-falsafah al-lughah al-'arabiyah*, Dār al-jīl, Lebanon.
- Khalīl al-Jurr(1993), *Lārūs*, Paris, Maktabat Lārūs.
- Muḥammad 'Aḥmad 'Abū al-Faraj(1986), *Al-ma'ājim al-lughahwiyyah fi daw' dirāsāt 'ilm al-lughah al-ḥadīth*, Cairo, Dār nahḍah al-'arabiyyah.
- Muḥammad 'Abd Al-ḥāfiẓ al-'Aryān(1984), *Al-ma'ājim al-'arabiyyah al-mujannasah*, Cairo, Dār al-muslim.
- Rāmīl Ya'qūb(1992), *Fiqh al-lughah al-'arabiyyah wa kḥaṣā'isuhā*, Beirut, Dār al-'ilm lil-mallāyīn.
- Versteegh, K.(1997), *The Arabic Languag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윤은경**

소 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연락처 : 010-9121-2452

이메일 : nabilayun@hanmail.net

투 고 일 : 2011.05.01

심 사 일 : 2011.05.18~05.31

게재확정일 : 2011.06.08